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2001. 5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 <목 차>

### 1. 새로운 세기, 남북의 만남

- 가. 통일환경의 변화
- 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 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 2. 남북정상회담 1년의 변화

- 가. 분단 고통의 해소
- 나. 민족공동번영의 토대 마련
- 다. 민족동질성 회복 증진
- 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대
- 마. 북한의 탈냉전 적응 노력

### 3. 공존과 상생의 기반 마련

- 가. 대결에서 화해로
- 나. 긴장에서 평화로
- 다. 분단에서 공존으로

### 4.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향한 과제

- 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다.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라.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

## <부록>

- ①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0.1~ 2001.5)
- ② 통계로 본 남북관계 실적(2000.1~2001.4)



#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 1. 새로운 세기, 남북의 만남

### 가. 통일환경의 변화

#### <국제정세의 변화>

- 1980년대 말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 진행, 구 소련 해체로 국제적 냉전질서가 종식된 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
-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세계 속에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냉전적 대결 구도를 지속하느냐, 개방과 협력의 새로운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느냐 하는 선택을 요구
  - 우리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공존, 민족번영,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우리의 국력 신장>

- 1970년대 후반 이후 남북간 국력격차가 점차 커져,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해졌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
  - 명목 GNI 대비 약 26배, 1인당 GNI 대비 약 12배, 무역 규모 대비 약 178배(1999년 한국은행 통계)



- 또한 우리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개방된 사회 구조는 한반도 평화 유지,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 하지만 분단 구조를 지속하는 한 우리의 국력 신장에 한계가 있으며, 7000만 민족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국제경쟁 속에서 21세기 민족번영을 도모할 필요

#### <북한의 여건 변화>

- 북한은 1990년 이후 연이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에너지·식량·외화난에 직면하고 이탈주민이 증가하는 등 체제 이완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법' 제정(1998.3)을 통해 무역 활성화, 헌법 개정(1998.9)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 요소 부분적 도입, 금강산 관광사업(1998.11) 개시, 관료·학자들을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 학습 등 조심스럽게 변화 조짐 시현
- 북한도 냉엄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 속으로 동참을 모색
  -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1994.10) 이후 대미·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접촉 활발히 전개



## 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 <대북화해협력의 일관된 기조 유지>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구도’로 전환하는데 주력
-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② 흡수 통일 배제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3대 원칙으로 정하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
- 즉,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진
  - 1998년 동해 북측 잠수정 침투 사건, 1999년 서해 북측 경비정 북방한계선 침범 사건(연평해전) 발생시 이에 철저히 대처하면서도
  - 이러한 사건 발생에 연계하지 않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금강산 관광 등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 시키려는 우리의 일관된 목표에 의한 것



## <우리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상 1970년대부터 시작

### —————< 우리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

- 7·4 남북공동성명(1972)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 발표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1973) : '남북의 내정 불간섭 및 불침략, 북한의 유엔 국제기구 참여,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 20개 시범사업 추진 제의(1982) :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상봉, 설악산·금강산 공동관광지역 개방, 상호 방송 청취, 민족사 공동연구, 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등
- 7·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 :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 과도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 남북정상회담·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남북공동사무처 설치 제시
-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화해·불가침·교류협력 분야의 3개 부속합의서 채택 발효(1992)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1994)
-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



-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부터 있었던 화해협력 노력을 계승, 대북정책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정립하고 일관되게 추진

-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국제사회,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획득

### < Q/A : 왜 대북화해협력정책인가? >

- 대북정책 관련 3가지 선택이 가능

- 첫째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 쿠바나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 봉쇄정책을 사용해도 붕괴가 용이하지 않음
- 현 시점에서 채택시 오히려 남북한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높후

- 둘째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disengagement or benign neglect policy)

-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존재
- 또한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동포애적인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 셋째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

- 튼튼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
-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



## 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베를린 선언)
-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북측은 우리측에 특사접촉을 제의, 이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2000.4.8, 베이징)
  - 이후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고, 선발대가 파견되어 평양 현지에서 통신·보도, 의전·경호 등 실무 준비
- 2000년 6월 13일~15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개최
  - ▲서해항로를 이용 우리 국적기가 평양을 왕복 ▲남북 협력에 의한 TV 생중계 실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 ▲ 약 60만 평양 시민의 환영 ▲ 국내외 300여개 언론사 1,300여명 취재 등 분단 사상 초유의 기록 양산
-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발표
  - 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③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④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 활성화 ⑤ 남북당국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



## 2. 남북정상회담 1년의 변화

### 가. 분단 고통의 해소

#### <이산가족 문제 해결>

-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인 동시에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
  -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이산 1세대들이 노령화하고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 남북 이산가족 현황 >

- 1945년 분단과 1950년 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납·월북, 탈북 등으로 가족 이산은 계속
- 2000년 말 기준 남한내 이산 1세대는 약 123만명, 이중 60세 이상은 약 69만명으로 추정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00년 말 기준 약 11만 4천명

-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남과 북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총 3,6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
  - 1차 : 2000. 8.15~18, 1,170여명 상봉



- 2차 : 2000.11.30~12.2, 1,220여명 상봉
- 3차 : 2001.2.16~2.18, 1,240여명 상봉

※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지난 1985년 이후 15년만에 재개

○ 생사확인은 총 10,213명(생존 6,142명, 사망 4,071명)

- 3차례의 방문단 교환을 통해 총 7,946명,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통해 총 2,267명

○ 서신 교환은 남북 각 300명씩 600건(2001.3.15)

○ 또한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설치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면회소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측은 ▲ 2001년내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 면회소 ▲ 그 이전에 판문점·금강산 임시면회소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 북측은 ▲ 선(先) 금강산 항구적 면회소 공동건설 ▲ 추후 경의선 연결지점의 설치 가능 입장 고수

####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 우리 정부는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직접 북측에 제기, 설득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



## — < 납북자 · 국군포로 현황 > —

- 납북자 : 휴전이후 납북자 총 수는 3,790명으로 90% 이상이 어부들이며, 이중 3,303명(87%)이 이미 송환되었고 북한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13%인 487명으로 파악
- 국군포로 : 1953년 정전협정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포로교환을 실시하였으나 공산군측은 국군포로중 8,300여명만을 송환하고 나머지 인원(약 19,000명으로 추정)은 미송환
  - 1994년 국군포로 출신 첫 탈북자(조창호)가 귀환, 탈북 국군포로의 증언을 통해 371명의 재북 국군포로가 확인
- 그러나 북한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쟁만을 계속할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곤란
  -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견지
    - ① 귀환 희망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송환 추진
    - ② 제3국으로 탈북한 사람은 모두 귀환시킴
    - ③ 귀환 국군포로는 과거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최대한 처우
    - ④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도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 재북가족과의 상봉 및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2차,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시 국군포로 및 납북된 동진호 선원과 KAL기 승무원 가족 상봉



## 나. 민족공동번영의 토대 마련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데 따라 남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경의선)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2000.9.1)
    -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 연결 기공식(2000.9.18, 파주시 임진각)을 갖고 지뢰 제거 등 공사 시작
  - 철도는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24km,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에서 개성까지 17.1km 연결
    - 우리측 구간(철도 12km, 도로 5.1km)은 우리가, 북측 구간(철도 · 도로 12 km)은 북측이 공사
- ※ 북쪽 공사 구간은 평야이고 논 · 밭으로 되어 있어 우리쪽 지역보다 지뢰제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DMZ까지 철도 ·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공사량이 많지 않음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DMZ) 및 군사분계선상에서 진행되게 되므로
    - 남북은 군사당국자간 협의를 갖고 지뢰 제거 범위 등 군사적 실무문제에 대해서도 합의
    - 현재 「군사적보장합의서」에 대해 북측이 합의서 서명을 미루고 있어 DMZ에서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남북간 친교역로를 확보하는 의미



- 유럽 내륙지역과의 수송시 현재 해운수송에 비해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약 3/5까지 절감될 것

※ 서울~벨라루시공화국간 수송 비교(2000.8, 교통개발연구원 자료)

▲ 해운 : 수송시간 26일, 수송비용 2,100 \$/TEU

▲ 철도 : 수송시간 16일, 수송비용 1,300 \$/TEU

- 북한지역에서의 임가공 활성화,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직접투자로 전환되는 계기
-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간 긴장 완화에 기여
- 특히 경의선 철도가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연결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 중국 및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 및 활용에도 기여할 것 (철의 실크로드 형성)

### <개성공단 개발>

- o 2000년 8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는 북한내 공단 후보지로서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현대와 북측 아·태간에 개성 공단 조성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00년 11월 현대와 토지공사는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100만평에 대해 현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
- o 우리측은 개성공단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측에 임금·고용·토지임대·세제·송금 등과 관련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구중



-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된다면 우리 중소기업, 특히 신발·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 최근 몇 년간 임진강 유역에서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는 특성 때문에 어느 일방의 치수 사업으로는 한계
- 우리는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을 북측에 촉구, 2000년 9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에 합의
  - 2001년 2월 평양에서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어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조사 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 앞으로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임진강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 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 교환과 홍수예보체계 구축, 하천정비, 제방축조 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남북이 함께 하는 치수사업으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남북이 함께 잘사는 터전을 만들어 가는 의미

###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채택>

-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대북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보장·



## 청산결제 · 이중과세 방지 · 상사분쟁해결 등 4개 합의서를 채택 (2000.11.11)

- 투자보장의 경우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송금 · 출입 · 체류 등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
  - 청산결제의 경우 청산결제 대상품목 · 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을 규정하고 청산결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인 일반결제방식을 적용
  - 이중과세 방지의 경우 사업소득, 이자 · 배당 · 로열티 등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 또한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등도 명시
  - 상사분쟁해결의 경우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 o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서의 타결로 남북 경제교류 ·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될 것
  - o 경협관련 4개 합의서는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중

## 다. 민족동질성 회복 증진

### <남북 인적 왕래 급증>

- o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간(2000.6~2001.5) 남북간 인적 왕래가 급증,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7,965명이 남북을 왕래



- 북한방문자 7,318명, 남한방문자 647명으로, 그 이전 1년 (1999.6~2000.5) 방문자 보다 각각 1,698명, 381명이 증가

※ 특히 인적교류가 시작된 '89년 이후 지난 12년간 총 왕래인원은 21,909명이며, 그중 지난 1년동안 인원이 36%를 차지

### <사회,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

- 남북정상회담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합의한 이래
- 언론분야에서는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2000.8)하여 남북언론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KBS의 백두산 현지 생방송(2000.9), SBS의 평양 현지 생방송(2000.10), 한겨레신문·MBC의 방북 취재 등이 성사
- 문화분야에서 2000년에 남북교향악단 서울합동연주회 개최(8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필름 북측에 전달(11월), 2001년에 우리측 창극단의 '춘향전' 평양 공연(2월), 우리측 가수 김연자의 함흥 공연(4월) 등이 성사
- 관광분야에서는 2000년에 우리측 관광단 109명이 백두산을 관광(9월), 2001년에는 북측 관광단이 한라산을 방문할 예정
-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에 남북선수단의 시드니 올림픽 공동 입장(9월), 금강산에서 자동차질주경주대회(7월) 및 전국체전 성화 채화(9월), 평양에서 통일탁구경기대회(7월) 등 성사
- 종교분야에서는 2000년 부활절 남북연합예배,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행사, 2001년 부처님 오신날 남북동시법회 행사 개최



- 한편, 우리측은 교수·대학생·문화계인사로 구성된 방문단을 시범적으로 교환하자고 제의, 북한측과 원칙적 합의
- 이같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특히 남북주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기여

###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내 북한에 대한 관심 증대>—

- 지난 1년동안 남북 교류·접촉의 증대와 함께 그 동안 장막속에 가려졌던 북한에 대한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젊은층을 중심으로 북한 말씨, 노래, 율동, 패션의 일시적으로 유행
  -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등 남북 관련 영화에 관객 쇄도
  - 언론사를 비롯한民間 차원에서 북한 정보자료 축적 및 공급 증가 등

### 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대

#### <시드니 올림픽 남북공동 입장>

-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 입장
  -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한반도에 넘치는 화해의 분위기와 남북이 한민족임을 전세계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



## <남북외무장관회담>

- 남북한은 2000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각료회의를 계기로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개최
  - 우리측은 북한의 ADB·APEC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
  - 이에 북한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나가자고 하면서 UN총회에서 협력할 것을 다짐

##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 2000년 10월 제55차 UN 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 UN 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
- UN 인권위원회에서도 남과 북은 일본의 종군위안부 및 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 항의(2001.4.9)
- 재외공관의 남북 인사간 교류도 빈번
  - 중국 주재 우리 대사의 북한 대사관 방문, 싱가폴 주재 북한 대사의 우리 대통령 싱가폴 국빈 방문 공식환영행사 참가 등

## 마. 북한의 탈냉전 적응 노력

- 국제적 탈냉전에 부응하여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해 온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변화 폭을 넓히고 속도도 가속화



## <북한 내부 변화>

- 2001년 들어 「신사고」를 표명, 내부적으로 의식 전환을 촉구
    - “우리는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불들고 앓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야 한다”(2001.1.4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상해(上海) 포동지구를 방문, 중국식 개방·개혁정책의 성공사례를 적시, 내부 변화를 강력 시사(2001.1)
    - “18년만에 상해를 방문하니 변하지 않은 것은 黃浦江 하나뿐이다. 상해가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뤄 현대화된 도시로 바뀌었다”, “앞으로 대남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김정일 국방 위원장 방중시 발언)
  - 서방국가에 경제시찰단 파견 및 경협사절단 초청
    - 경제시찰단을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국, 이탈리아 등에 파견(2001.2~3)했고, EU, 러시아, 네델란드 경제대표단 등을 초청(2001.2~3)하였으며 우리측에도 경제시찰단을 보낼 예정
- ※ 2001년 1/4분기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 74회, 경제대표단 초청 53회
-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승인(2001.4, 최고인민회의)
    - ‘가공무역법’에서는 사업주체 및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경영관리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율경영을 보장
    - 홍성남 총리는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을 보고하면서 ‘과감한 실리주의 원칙’과 ‘대외지향적 정책노선’을 표명함으로써 변화의 방향을 시사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 다양한 국제기구 가입 및 가입 노력 지속

- 2000년 7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회원국으로 가입,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해 노력

### ○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외교 관계 증대

- 조명록 특사의 방미,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통해 북·미 관계정상화를 협의(2000. 10)하고 북·일 수교협상도 재개
- 2000년에 이탈리아·호주·필리핀·영국, 2001년 5월 현재 네델란드·벨기에·캐나다·스페인·독일·룩셈부르크·그리스·브라질·뉴질랜드·쿠웨이트와 수교

※ 특히 EU 소속 15개국중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

※ 북한측은 독일과 수교시 독일 외교관과 원조 기관의 북한내 활동 및 원조진행상황 파악(monitoring)을 보장

- 2001년 4월, EU 의장인 페르손 스웨덴 총리 일행을 초청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페르손 총리가 방북후 직접 서울로 이동하는데 동의하고, 2003년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 유예,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를 언급

※ EU와 수교 계획 발표(2001. 5. 14)



## < Q/A : 최근 북한은 변화에서 후퇴하는 것 아닌가? >

- 최근 북한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발언 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을 빨리 결정할 것과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우리측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해 방문 및 스웨덴 페르손 총리 면담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유지
  - 결국 북한이 내부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을 취할 수는 있으나, 큰 흐름에서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려우며 체제 유지를 위해 현실주의적 정책과 개방·개혁 노선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
- ※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개혁의 확대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



### 3. 공존과 상생의 기반 마련

#### 가. 대결에서 화해로

- 남북정상회담 1년을 통해 남북관계는 과거의 대립·갈등 관계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대전환
    - 과거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惡循環) 구도에서 공존과 협력의 선순환(善循環) 구도로 전환
  -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역사의 큰 흐름이 새롭게 형성
    - '1945년의 질서'에서 '2000년의 질서'로 전환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필요한 일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관례를 정착
    - 4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대화를 통해 총 31개의 현안에 대해 합의 및 이행중
    - 남북간 합의·이행이 일과성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최근 북한은 합의 이행을 다소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처럼 합의 자체를 무실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판단
  - 남북공동선언이 구체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기본틀로써 정착
- ※ 과거 남북간에도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2)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가 존재하였으나 그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음



## < Q/A : 북한에 속거나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각종 남북간 현안 문제 해결은 우리측이 주도
  - 경의선 철도 연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마련 등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합의하여 실천하고 있는 31개 사업 중 25개가 우리측이 제의하고 북측이 응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
-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은 변화가 없으며, 이같은 의도를 감춘 채 일시적으로 남북화해에 응하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국제정세, 남북간의 현격한 국력격차,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수준 등을 볼 때 지나친 우려라 할 것임
  -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나. 긴장에서 평화로

-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되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공감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 비방과 중상, 긴장 조성행위를 중지



- 과거 50여년 동안 우리는 북한의 전쟁 위협, 납치, 테러, 파괴, 전복 행위로 인한 민족적 불행을 경험했으나, 남북정상 회담으로 이러한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 2000년 9월,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 전쟁위협 제거 및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군사적 협력문제에 합의,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 개시
    - 다섯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공동관리구역」 설정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규칙」에도 합의
    -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
  - 남북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냉전구조 해체의 동인(動因)으로 작용
  - 미국과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부응하여 고위급인사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의 적대관계 청산, 관계정상화 본격 논의 개시
    -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우리의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지하고,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미-북간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확산 및 EU 등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관계개선 본격화
- ※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 70%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감소되고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었다는데 대해 공감(2001년 2월, 「리서치 엔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 다. 분단에서 공존으로

-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분단 극복 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정착
    -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임
  -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당장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우선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 실현에 합의
    - ‘우리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키로 합의
    - 현 시점에서는 제도통일보다는 중간과정으로서의 평화공존을 중시,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되,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의 완성을 지향
  - 현 남북관계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클 것이므로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이 분명
    - 우선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평화공존을 제도화 해나가는 것이 ‘남북연합’임
- ※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꾸준히 늘려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서로 돋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후에 ‘법적·제도적 통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 Q/A : 우리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점은? >

-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는 것임.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의미
-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음.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 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방안으로, 둘 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두 방안 모두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음.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는 과거 북측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음을 분명히 함



## 4.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향한 과제

### 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2001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효과
  - 북한 체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화해의 강한 상징적 의미
  -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발전 상황을 직접 봄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
-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 ① 교류협력을 보다 넓고 깊게 하여 화해협력을 정착시키는 문제 ②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실천방향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관계는 한 차원 높게 발전될 것
- 정부는 남북간 협의사항 사전 조율 및 국민적·초당적 협조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 현 시점에서는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대북지원·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



## < Q/A : 북한은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 >

- 과거 불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잘잘못을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임
- 현시점에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감으로써, 과거 잘못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결코 과거사를 잊거나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며, 이를 현실적·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임

##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과 북 사이의 긴장완화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내포
  -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과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
  - 북한이 미·일과 적대적 관계로 있는 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도 어렵기 때문



- 미국 부시 행정부도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리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면담(2001.5.9)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시 대통령 친서를 전달
    - ① 한국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강력히 지지
    - ②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거의 종료 단계
    - ③ 대북정책 검토 종료전 김대통령의 견해를 들어 최종 결정
    - ④ 북한과 대화할 용의 있음
    - ⑤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임
  -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정책 검토가 완료된 후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개될 것이다”라고 언급(2001.5.14, 워싱턴, CNN 인터뷰)
- 일본의 새 고이즈미(小泉) 내각도 미-북 대화에 맞추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미·일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협의·추진할 방침
-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 북, 미, 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
  -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 중이 보장하는 방식
- 궁극적으로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통해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



## 다.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대북화해협력은 우리 국민이 이룬 경제발전과 민주화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강자(强者)의 정책
-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인 우리 국민의 지지와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
  -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화해협력 정책 추진에 지지를 표명(2000년 네차례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
- 남북정상회담 1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문을 연 단계로, 대결과 불신으로 지속된 55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을 것
- 따라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인내심을 갖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큰 흐름은 확대될 것
- 정부는 국회 및 여야 각 당과의 사전·사후 협조를 강화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폭넓게 수렴하여
  -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라.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

- 남북관계의 개선은 우리 국민의 뜻, 남과 북의 현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체적 접근이 이루어 질 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음



- 그러므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북한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각적으로 조화되는 「더불어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함

-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의 중심은 우리 국민임

- 국민의 뜻과 의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이며, 정부도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음
-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하게 될 것임

-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북한의 호응이 중요함

- 우리는 먼저 남북관계 개선의 직접 상대방인 북한을 피동적 객체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창조하는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북한의 경제회생 의지와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은 우선적으로 협의될 수 있는 분야

- 대북정책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주변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때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수 있음

- 주변국의 개별 이익을 균형되게 고려하는 주도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단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 민족의 이익과 주변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영역을 넓혀나가야 함



- 그리고 관계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당면 현안 중심의 평면적·대칭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상호 추구하는 이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실천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입체적·포괄적 접근 방식이 필요
- ※ 사건 하나하나에 일회일비하던 과거의 소모적 해결방법을 극복
- 이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참여」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를 지혜롭게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정부는 우리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미·일 등 유관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
- 우리 국민들이 변함없이 대북정책을 지지해줌으로써 우리 주도로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이 폭넓게 이루어지길 기대함



##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0.1~2001.5)

2000년

- 1. 3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
- 1. 5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  
    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③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1.12 한국담배인삼공사, 남북합작담배 '한마음' 남북 동시판매(3. 1) 발표
- 2. 1 한·미·일, 3자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서울)
- 2.17 정부,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 제정·시행
- 2.22~25 KEDO-북, 고위 전문가회의 개최(평북 향산)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 북한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 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및 특사교환 촉구
- 3. 9 금강산 유람선(풍악호), 부산 다대포항 출항 시작
- 3.17~4. 8 남북 특사접촉(중국 상해, 북경)  
    -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남) - 송호경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북)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3.23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획정에 대한 후속



## 조치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 발표

- 4.10 남북 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서울, 평양)
- 4.2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1차 회담(판문점)
  - 양영식 통일부 차관(남) -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참사(북)
-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2차 회담(판문점)
- 5. 3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3차 회담(판문점)
- 5. 7 이현재 재경부장관, ADB총회에서 회원국에 북한의 가입 협조 요청
- 5. 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4차 회담(판문점)
  - 5. 9~17 「문서교환 방식」을 통한 협의
- 5.13 남북정상회담 제1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6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7 남북정상회담 제2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5차 회담(판문점)
  - 남북합의서(2000.4.8)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합의서 타결
- 5.24~30 북한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 공연
- 5.29~31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5.29~6.10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 공연



- 5.31 남북정상회담 선발대(30명) 방북
- 6.13~15 남북정상회담 개최(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6.27~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금강산)
- 7.26 남북 외무장관회담(태국 방콕)
- 7.29~31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서울)
  - 박재규 통일부 장관(남) -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북)
- 8.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남북언론사들간 언론 교류 등 공동합의문 발표
- 8. 8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 8.14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8.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8.18~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 합동공연
- 8.22 현대·북한, 개성공단 개발관련 합의서에 서명
- 8.29~9.1 제2차 장관급 회담 개최(평양)
- 9. 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 9. 4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취소



- 9. 6~8 김대중 대통령,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가
- 9. 6 한·중 정상회담 개최(뉴욕)
- 9. 8 한·러 정상회담 개최(뉴욕)
- 9.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
- 9.15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
- 9.18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 9.20~23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금강산)
- 9.22~27 조총련 동포(50명) 남측 고향방문
- 9.22~28 백두산 관광단(109명) 방북
- 9.25~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서울)
- 9.27~30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제주도)
- 9.28 정부, 대북식량차관제공 발표
- 10. 4 우리측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서」 체결
- 10. 9~12 북한 조명록 특사, 방미  
- 미·북 공동선언 발표(10.12)
- 10. 9~14 남측 방문단,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 10.15 현대아산, 북한 금강산 여관 30년 임대계약 체결
- 10.18 한·중 정상회담(서울)
- 10.20 아셈(ASEM)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서울)
- 10.23~25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회담, 미사일 문제 등 협의
- 11. 2 NS21,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필름 북측에 전달
- 11. 8~11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평양)
  -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가서명
- 11.11~19 영화인 11명 방북
- 11.16 북-유엔사 장군급회담(판문점)
  -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한국에 이양 합의
- 11.17~22 조총련동포(119명), 제2차 남측 고향방문
- 11.21 현대-북한, 서울-평양 민간 직통전화 개설
- 11.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경의선·도로연결공사 협의
- 11.30~12. 2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12. 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 7 서울 가정법원, 북한 주민에 대해 남한 호적등재 승인
- 12. 8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 12.11~14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금강산)
- 12.12~16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평양)
- 12.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22 한국전력 공사, 현대건설 등과 북 경수로 주설비공사 계약체결 발표
- 12.27~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평양)



- 1.15~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상해 등 경제특구 시찰
- 1.23~27 영국 외무성대표단(단장:마스텐 아태총국장), 방북
- 1.27~2.13 북 노동당대표단(단장:지재룡 부부장), 영국·프랑스·벨기에 방문
- 1.29~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남측 대표: 이병웅(수석대표), 고경빈, 최기성
  - 북측 대표: 김경락 단장, 리금철, 리호림
- 1.31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2. 1 우리측 창극단 「춘향전」 평양 공연
- 2. 3 남북,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서명·교환
- 2. 6~20 EU 경제대표단, 방북
- 2. 8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따른 군사적 보장합의서 타결
- 2. 8~10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 2.18~3. 2 북 무역성대표단(단장:김동명 부상), 호주·브루나이 방문
- 2.21~24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 2.23 제2차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작업 결과 통보
- 2.24~3. 2 북 경제대표단(단장:전승훈 금속기계공업상), 이탈리아 방문
- 2.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상호 교환방문(서울, 평양)
- 2.27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 한-러 정상회담 개최
- 2.27~3. 3 북 경제대표단(단장:한성렬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미국 방문
- 2.27~3. 6 고(故) 한덕수 조총련 의장 북측 조문단(단장:양형섭), 일본 방문
- 3. 2~3 스웨덴 「한스 그렌달」 외무차관, 방북
- 3. 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대북 서한 전달
- 3. 6~11 김대중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 3.10~13 영국 「존 커」 외무차관, 방북
- 3.10~14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문화·체육 교류 관련 협의
- 3.10~20 MBC 방북 취재
- 3.13 북측,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요청
- 3.15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 남북 각 300명, 600건
- 3.17 북 외무성대표단(단장:최수현 부상), 핀란드·스웨덴·체코·



## 폴란드 · 독일 · 프랑스 방문

- 3.18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평양에 남북공동대학 설립 합의 발표
- 3.20 경수로건설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인력(207명) 투입
- 3.20~24 중국 당대표단(曾慶紅 당 조직부장), 방북
- 3.24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측 조문단, 서울 방문
- 3.28 조총련계 북한 국적 축구선수 양규사, 현대프로축구단 입단
- 3.28 북측, 제46회 세계탁구선구권대회 단일팀 불참 통보
- 3.30 광주시, 평양 · 남포지역에 김치공장 설립 합의 발표
- 4. 5 북,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개최(만수대의사당)
  -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승인
  - 홍성남 총리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보고
- 4. 6 조총련 동포(72명), 제3차 남측 고향방문
- 4.11 가수 김연자 함홍 공연
- 4.26 정부, 대북 비료지원(20만톤) 발표
- 5. 1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북 직총, 노동자대회 개최(금강산 온정각)
- 5. 3 페르손 EU 의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유예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심 표명



- o 5. 4 페르손 EU 의장 방한, 韓-EU 정상회담 개최
- o 5. 9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장관 방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 o 5.14 북한-EU 외교관계 수립 계획 발표
- o 5.19~ KBS 방북 취재



## 통계로 본 남북관계 실적(2000.1~2001.4)

### 1. 인적 왕래

- 2000년에는 7,280명이 방북, '98년부터 급증하여 '98-2000년 12 월말까지 16,196명 방북
- 2001년 4월 30일 현재 1,798명 방북, 전년 동기 1,479명에 비해 21.6% 증가
  - 대북지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북이 증가했기 때문

#### 【방북인원 추이】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4	계
방북 인원	1	183	237	257	18	12	536	146	1,015	3,317	5,599	7,280	1,798	20,399

- 1989 ~ 2001. 4월 현재 총 방북인원 : 20,399명

\*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방북인원 급증, '98-2001년 방북인원은 17,994 명으로 총 방북인원의 88.3%에 달함.

※ 1999년 5,599명 방북, 2000년 7,280명 방북  
【2001년 분야별 북한 방문】

(단위 : 명)



구분	경제	관광 사업	사회 문화	경수로 사업	대북 지원	이산 가족	기타 (남북회담등)	계
1월	24	32	62	117	17	-	-	252
2월	90	25	27	188	27	152	10	519
3월	105	95	60	223	92	-	15	590
4월	70	38	42	239	44	1	3	437
계 (비율)	289 (16.1)	190 (10.6)	191 (10.6)	767 (42.7)	180 (10.0)	153 (8.5)	28 (1.6)	1,798 (100.0)

【연도별·분야별 북한 방문】

(단위 : 명)

구분	경제	관광 사업	사회 문화	경수로	대북 지원	이산 가족	기타 (남북회담등)	계
'89			1					1
'90			93				90	183
'91	1		104		4		128	237
'92	28		19				210	257
'93			6			1	11	18
'94	12							12
'95	109		6	22	399			536
'96	80			58			8	146
'97	127		26	711	151			1,015
'98	231	1,962	238	756	129	1		3,317
'99	245	3,744	329	911	364	5	1	5,599
2000	543	2,257	674	2,231	751	348	476	7,280
2001	289	190	191	767	180	153	28	1,798
계 (비율)	1,665 (8.2)	8,153 (40.0)	1,687 (8.3)	5,456 (26.7)	1,978 (9.7)	508 (2.5)	952 (4.6)	20,399 (100.0)

\* 「관광사업」은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협의 및 추진을 위해 방북한 인원  
(금강산관광객 제외)



- 2000년에는 북한인사 706명이 남한방문, '94년부터 '98년까지 남한방문이 없다가 '99년 62명, 2000년에는 706명으로 증가
- 2001년 4월 30일 현재 145명 방문

### 【연도별·분야별 남한 방문】

(단위 : 명)

구분	남북 회담	경제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이산 가족	기타 (남북 회담 등)	계
'89	-	-	-	-	-	-	-	-
'90	180	-	33	78	-	-	-	291
'91	90	-	-	70	15	-	-	175
'92	90	13	-	-	-	-	-	103
'93	-	6	-	-	-	-	-	6
'99	-	-	-	62	-	-	-	62
'00	60	15	336			287	8	706
'01	-	-	-	1	-	140	4	145
계 (비율)	420 (28.2)	34 (2.3)	369 (24.8)	211 (14.2)	15 (1.0)	427 (28.7)	12 (0.8)	1,488 (100.0)

## 2. 금강산관광



- 2000년에는 213,009명이 금강산 관광, 2001년 4월 말 현재 30,123명이 관광하여 '98.11.18 관광개시 이후 2001년 4월 말 까지 총 401,760명

### 【금강산 관광객 추이】

	'98	'99	2000	2001.4.30	계
관광객 수	10,554(23회)	148,074(255회)	213,009(392회)	30,123(135회)	401,760(805회)

### 3. 교역규모

- 2000년에는 교역규모가 4억 2,515만 달러, '89년 약 1,800만불 규모로 시작되어 '91년 1억불, '95년 2억불, '97년에 3억불 규모로 성장, 점진적 증가 추세
- 실질교역수지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반입이 반출보다 많은 교역적자 상태
- 남북교역에 참여한 교역업체수와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 추세
  - '89년 30개 교역업체에서 2000년 652개 교역업체로 증가
- 2001년 4월 30일 현재 교역업체 193개, 교역품목 342개



【연도별 교역업체와 교역품목 현황】

(단위 : 개)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1/4분기
업체	30	38	100	147	127	145	258	333	442	378	581	652	193
품목	26	26	61	100	101	159	263	280	385	486	525	589	342



#### 4. 위탁가공교역 증대

- 2000년 1억불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성장

- '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94년 2천만불 수준을 넘어섰으며, '96년부터 7천만불 수준을 넘어섬.

##### 【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추이 】

(단위:천달러)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1/4분기	계
금액	838	7,008	25,663	45,892	74,402	79,069	70,988	99,620	129,190	24,340	557,010

-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와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 추세

- 교역업체가 '92년 4개업체에서 151개 업체로 증가
- 품목도 농산물·섬유·신발 등 단순가공에서 컬러TV, 자동차 배선, 컴퓨터모니터 기판,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다양화
- 2001년 1/4분기 현재 79개 업체, 154개 품목



## 【연도별 위탁가공교역업체와 교역품목 현황】

(단위 : 개)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1/4분기	계
업체	-	-	-	4	7	9	18	38	48	72	132	151	79	558
품목	-	-	-	9	36	65	84	113	98	144	169	257	154	1,129

## 5. 민간 차원 경제협력

- o 2000년에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건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 '92년이래 2000년까지 39건 승인

###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 추이】

(단위 : 개)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4	계
승인건수	-	-	1	-	-	6	4	16	13	2	1	2	45

※ 이중 4개건은 '99.12.23일자로 승인취소되어 현재 협력사업자는 41개



- 협력사업 승인실적은 2000년의 경우,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평화자동차조립공장 건설사업 등 2건, '95년이래 2000년까지 18건 승인(그중 11건이 '98년이후 승인)

###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추이】

(단위 : 개)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4	계
승인건수	-	-	-	-	-	1	-	5	9	1	2	-	18

## 6. 사회문화교류

- 2000년에 협력사업자 9건 승인, '91년이래 2001.4까지 28건 승인

###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 추이】

(단위 : 개)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4	계
승인건수	-	2	-	-	-	-	-	1	7	7	9	2	28

- 2000년에 협력사업 5건을 승인, '91년 이래 2001.4지 21건 승인

###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추이】

(단위 : 개)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4	계
승인건수	-	2	-	-	-	-	-	1	5	5	5	3	21

## 7.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2000-2001년 경상지출 현황(2001.4.30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	내 역		금액
2001	교류협력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10,438 9,275
	인도지원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 지원 ○ 제2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 제3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 대북 아동용 동내의 지원	9,649 89 26 169 636 438 4,59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11,240
		소 계	46,554
		○ 평양소년학생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 ○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지원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319 637 1,373 8,518 6,060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지원 ○ 대북비료 20만톤 지원 ○ 대북비료 10만톤 지원 ○ 제1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 총련동포 고향방문단 지원	228 3,379 153 63,572 30,785 1,871 455 12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 경수로사업대출금('98)외화환산손	19,023 16,622
	기타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99
	소 계		153,418

## 8.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생사확인	41	1,720	89	4,030	119	7,490	31	2,650	15,890(260건)
상 봉	55	5,024	142	12,240	91	15,740	29	5,580	38,584(317건)
교류지속					104	4,655	22	860	5,515(126건)
합 계	96	6,744	231	16,270	314	27,885	82	9,090	59,989(723건)

## 9. 이산가족 교류

-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속적 증가 추세

### 【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현황 】

(단위 : 건)

구분	연도	'85~'90~'91~'92~'93~'94~'95~'96~'97~'98~'99~'00~'01											소계 (평균)	'98. 3·12	'99	'00	'01 14	소계 (평균)	총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24	1,038 (120)	353	481	447	63	1,344 (424)	2,382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85	4,132 (477)	384	637	984	162	2,167 (684)	6,299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8	163 (19)	100	195	148	39	482 (152)	645		
	방북상봉										-	1	5	4	2	12	12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65									65			792	616	1,408	1,473		
	서신교환													39	623	662	662		
	방남상봉	30									30			201	100	301	331		
	방북상봉	35									35			205	100	305	340		



## 【 이산가족 교류동향 변화 추이 】

① 생사확인(2000.12월 말 현재)

② 상봉(2000.12월 말 현재)

단위(건)



## 10.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 정부는 긴급구호와 병행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보건·의료분야 등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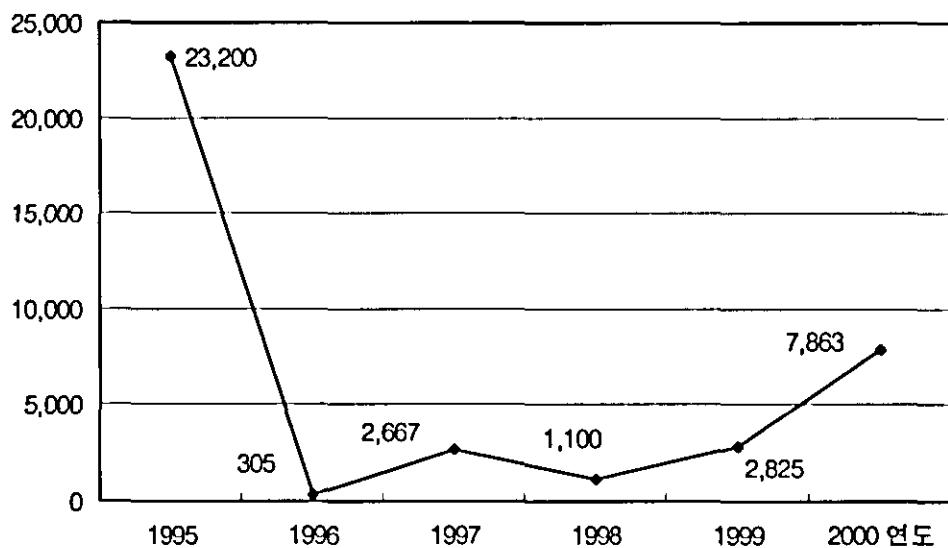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규모】

(단위: 만불)

기 간		'95.6~'98.2	'98.3~'01.4	계
정부 차원	계	26,172	12,956	39,128
	연평균	9,815	4,091	6,707
민간 차원	계	2,236	9,982	12,218
	연평균	839	3,152	2,094
계	계	28,408	22,938	51,346
	연평균	10,653	7,243	8,802

【정부차원 대북지원 추이】

만달러



- 민간차원에서는 동포애에 바탕을 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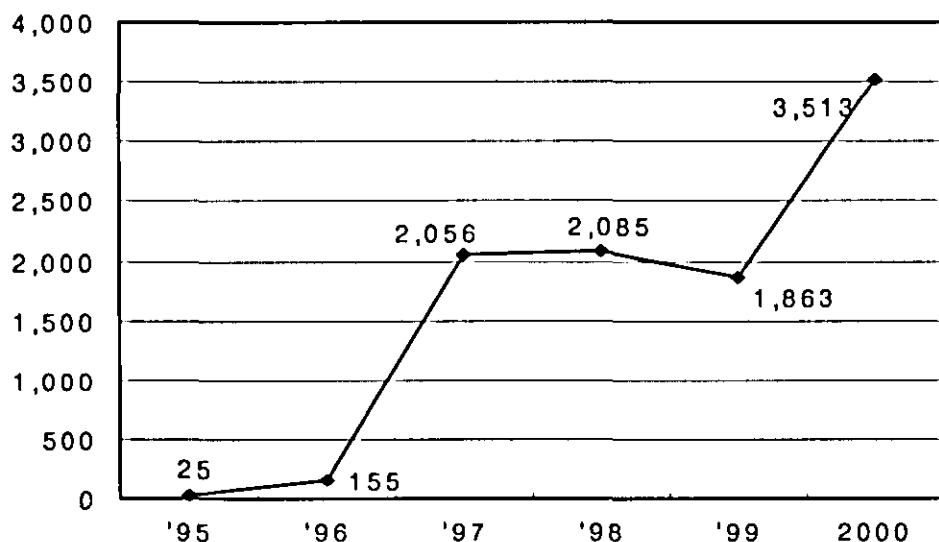


## 하는 방향에서 지원

- 내용면에서는 식량·생필품 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점차 농업개발, 보건·의료분야 등으로 다양화·전문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형태로 발전
- \*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분야 대북지원사업에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8개 단체 9개 사업에 54.1억원 지원결정)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만달러





## 11. 북한이탈주민 입국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4	총입 국자	사망	이민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5	71	148	312	135	1,542	190	33	1,319

###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이 (2000년 말 현재)】



## 12. 경수로 본공사 추진

- KEDO-한전 주계약(TKC) 체결('99. 12월) 이후 경수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 진행 중(전체공정 진척도 11.3%)
  - 부지정지공사는 전체 물량의 약 99% 완료(2001년 5월말 현재)
  - 취수방파제, 물양장(物揚場) 등 대규모 토목공사 착수와 도로·통신, 공업용수관 매설 등 기반시설공사도 병행 추진
- ※ 우리측 근로자 670여명, 북측 근로자 100명, 우즈벡 인력 360여명 등 총 1,100여명이 공동작업 중(2001년 5월 현재)
- 건설공정에 따라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기자재의 발주·제작에 착수되어 진행중이며
  - 2001년 9월초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기초굴착공사 착공 예정

## 13. 재원 분담 및 조달

- 지금까지 경수로건설에 소요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99-'01.5월간 5,775억원 발행)
  - 주계약(TKC) 발효에 따라 금년 4월까지 3억 6,195만불을 분담

### 【건설공사비 국가별 분담현황(2000.2-2001.4)】

(단위: 만불)

한국	일본	합계
36,195	15,512	51,707

